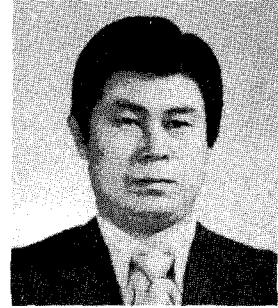


양계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집약하고 기술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주길

최진호

전북대 농대교수, 농학박사
미 플로리다주립대학원 졸업



월간 양계 창간 14주년을 맞이하여 대한 양계협회와 월간양계지의 발전을 기원한다.

사람의 나이와 비교한다면 만14살이면 이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겠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양계업계는 물론 부화업계, 사료업계, 동물약품업계 및 학계 등 관련분야의 모든 이들에게 친숙한 벗으로 착실히 성장해 온 것을 생각하면 대견스럽게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의 기술정보 및 업계소식을 전해주는 전달매체로서 또는 양계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여기에는 편집을 맡아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력과 월간양계지를 아끼는 모든 분들의 성원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소위 사춘기라 하여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위치나 자신과 주변환경과의 관계 등을 생각하고 장래를 설계하는 등 자기발전을 위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월간양계도 이제 아동을 지나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과거를 돌이켜 보고 훌륭한 전문지로 발전하기 위해 미래를 구상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월간양계와 같은 대중적인 전문지가 갖추어야 할 조건 또는 역할에 대해서 주관적인 견해를 몇가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관련분야의 사람이면 누구나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쉬운 내용이어야 한다.
- 2) 관련분야의 기술정보를 제공해 주는 유익한 내용이어야 한다.
- 3)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워야 한다.
- 4) 관련분야의 문제점 해결 및 발전을 위한 방향제시가 있어야 한다.
- 5) 관련분야 사람들의 고충과 의견을 집약하여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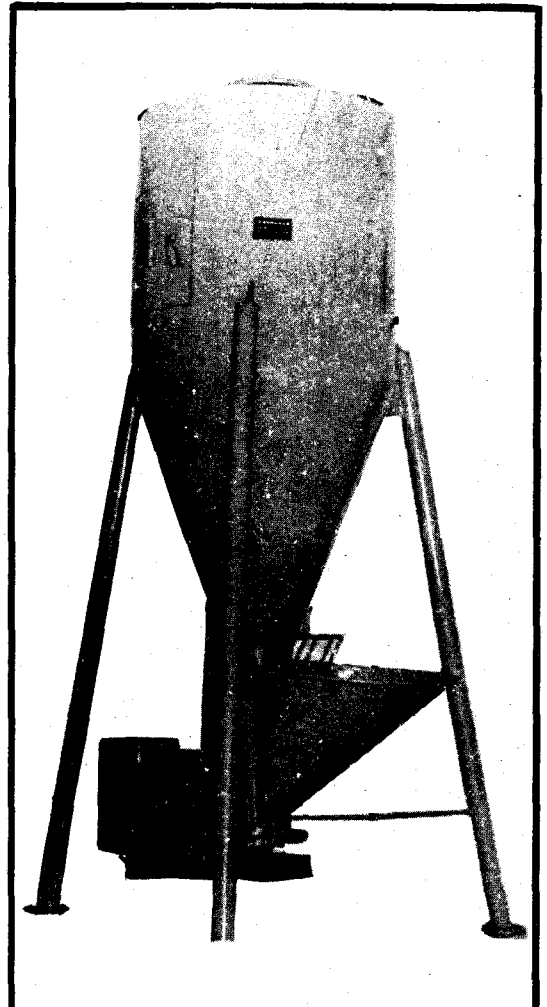
월간양계는 위의 다섯가지 조건을 어느 정도 잘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중전문지로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좀더 보강할 점도 있다고 본다. 우선 양계인들에게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비교적 다양한 집필진에 의하여 많은 유익한 지식들이 월간양계의 지면을 통하여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들이 얼마나 실제 양계인들에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관련분야의 기술정보를 제공한다는 역할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자칫 내용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너무 흥미본위의 오락서적이

되어서도 안된다. 바람직한 것은 유익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되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대학교수가 쓰는 글은 자칫하면 학술연구논문을 쓰듯이 어려운 학술 용어를 많이 사용하거나 그 내용이 너무 이론적이어서 비전문인이 보기에 지루한 감을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 어려운 학술연구의 결과를 소개하더라도 이것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설하는 것이 대중적인 전문지의 할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어떤 내용은 대학교수가 직접 집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교수로 부터 자료를 얻어서 취재기자가 일단 완전히 이해한 다음 독자에게 이해되기 쉬운 말로 소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학술연구논문들을 광범위하게 발췌하여 쉬운 말로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분야별 인적 자원(적어도 석사학위를 보유한)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양계업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집약한다는 기능의 면에서 볼때 실제 사양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월간양계의 내용을 구성하는 집필진을 보면 업계, 학계 등 비교적 다양한 편이나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실제 사양가들의 투고가 더 많았으면 한다. 사양가들의 경험담이나 고충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양계업계의 실상을 보다 속속들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사양가들의 투고가 활발치 못하다면 취재기자들이 사양가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시켜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한국의 축산에 있어서 양계산업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도 없거니와 양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월간양계가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본격적인 전문대중지로서 월간양계가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밀어 주자.



사료혼합기

과학적인 설계로 배합속도가 빠르고 배합이 정확하며 모타의 하부 장착으로 안정되게 가동됩니다.

100kg, 200kg, 기타



과학축산시스템

서울·성동구 능동 246-10
☎ 445-0212, 1886